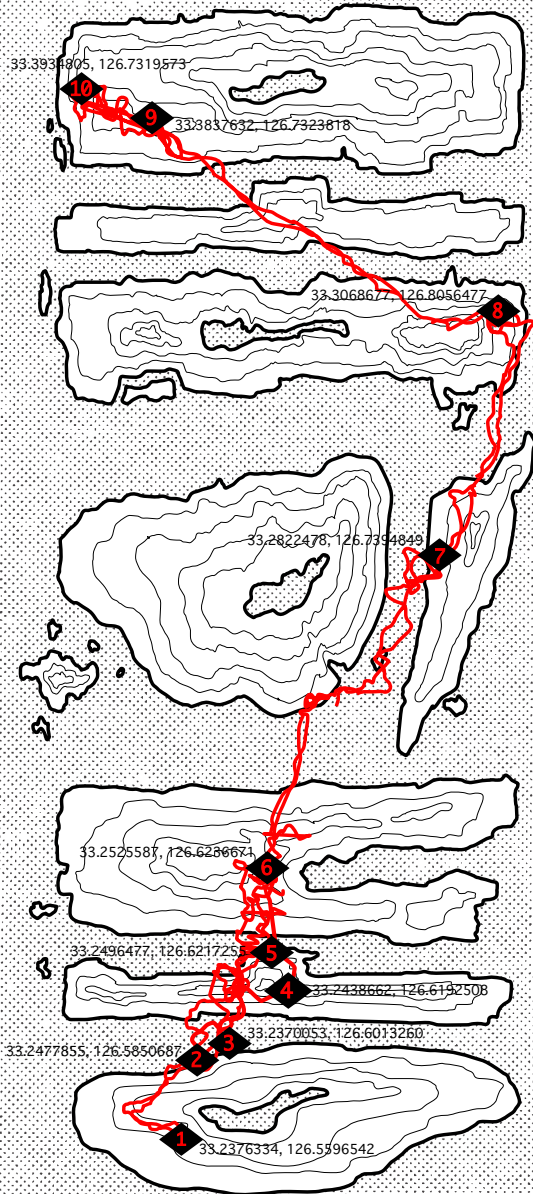


# 춤추는허리 이동 프로젝트 과정공유회 <몸이동>

춤추는허리 이동異動 프로젝트 과정공유회 <몸이동>

2023.12.27 (수) 17:00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평창동)



장애여성의 이동은 늘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불안하고 위태위태해 보이는 꼬인 몸. 빠른 성장과 효율, 각자도생인 사회에서 장애인의 몸의 속도는 느리고 무능력한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다른 장소와 관계, 삶의 기억들을 저장하고 움직인 이들의 이동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한 몸과 공간이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불구의 몸은 더 선명해집니다. '춤추는허리 이동異動 프로젝트' 과정은 끊어진, 불안한, 불화하는, 위태로운, 울퉁불퉁한 |제주 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끄럽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길을 이동하며 불화, 기후위기, 돌봄, 시설사회와 마주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가 요구하는 속도, 효율, 이윤 등 정상적 시민 모델에 맞지 않아 배제되어 왔던 몸. 불구의 몸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계속 질문하며 더 느려지려 합니다. 우리의 동선은 아직 비어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들며 매끄럽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길을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완과 충돌 사이를 넘나드는 요가가 될 수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될 수도, 춤이 될 수도,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 없는 길을 가는 춤추는허리의 중간 과정 공유회 <몸이동>으로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려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동선에서, 몸이동.

**제작** 장애여성공감

**공동제작** 반달

**후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연출** 김화용 이진희

**프로듀서** 김민경(mk)

**극본** 이진희

**출연**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

(고나영 김미진 김상미 서지원 조화영 진성선)

**임지인**

**관객과의 대화 사회** 최현숙

**영상촬영** 지윤정 김보라 김우섭

**공연촬영** 임훈순 김우섭 홍지연

**음향** 김근채(핑크타이어 스튜디오)

**음악** 송조인

**조명** 강상민

**의상** 김미진

**디자인** 어라우드랩

**수어통역** 명혜진 임윤철

**문자통역**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사진** 현준영

**프로젝트매니저** 조경미

**현장스태프** 김이해초 낙지 다른 조하늘

**차량** 신상진 최도선

**식사** 김덕녀

## [관람 안내]

- \* 본 공연은 '배우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배우들의 퍼포먼스 후 공동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 \* 공연 현장을 촬영합니다. 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티켓 접수 시 현장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본 공연은 관객석 위치에 따라 보이는 장면이 다르며, 누구도 모든 곳을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공연은 저마다의 소통방식(문자, 수어, 음성 등)으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 \*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메일** wdc214@gmail.com

**홈페이지** www.wde.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트위터** @wde\_gonggam

**인스타그램** @wde\_gonggam

**전화** 02-441-2384

춤추는허리 이동 프로젝트 과정을 함께한 협력단체 반달과 김민경PD, 김화용 작가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연출의 글

# 김화용

‘춤추는허리’ 배우들을  
제주의 가장 남쪽 서귀포에  
초대했습니다. 지도 앱에

목적지를 검색하면 알려주는 길과 도착 예정  
시간은 장애를 가진 몸에는 맞지 않는 안내입니다.  
흔들리고 멈추고 돌아가야 하는 불구의 시간은  
언제나 지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개발 과잉의 장소에서 풍경의 틈이  
있는 곳으로, 육지에서 제주에 갔습니다. 머물고  
가만히 있기를 강요받던 몸들이 움직입니다.  
실험실과 같이 표백된 매끈한 극장과 전시장을  
나와, 안전하게 허락된 경사로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울퉁불퉁한 길을 움직였습니다.  
느리고 느린 시간 위에서 시선은 자연스레 다양한  
곳에 도달합니다. 높은 하늘로 트인 장소에  
들어오는 바람으로 향합니다. 낮은 바닥과 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도 머뭙니다.

사회는 시설과 제도를 통해 안과 밖을 만들고  
정상성의 기준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춤추는허리’는 이 구분을 적극적으로 균열 내며  
확장된 의미의 ‘시설’에 은폐된 존재들에게  
접속하고 함께 ‘몸’으로 탈주했습니다. 보호와  
관리의 존재이기를 거부하고 상호돌봄과 연대의  
감각을 축적한 몸들이 ‘밖’으로 나와 제주에  
당도합니다. 최남단 제주는 바다의 수온 변화부터  
기후재난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제2공항, 군사 기지 건설, 관광개발 같은 토건  
사업, 최근에는 우주발사체 발사까지 권력의  
각축장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이는 제주의 생태를  
위협합니다. 지배권력이 만든 규범을 하나의  
‘시설’로 바라보던 ‘춤추는허리’의 시선으로, 제주에서  
우리는 누구와 또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느린 것이 곧 저항인 불구의 몸은 발전, 개발,  
성장을 멈추고 느려져야 복원되는 생태적 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각 불구의 역사 안에서

연결되었던 몸들은 제주로 이동하면서 누락되고  
멸종되어 가는 존재의 부르짖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로 돌아와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들과 서로 길어 올리고 매달렸던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 이진희

몸이동. 우리는 이미  
살았던 먼 기억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동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동. 서로를 만나  
뒷걸음질 치고, 잠수했던 경험을 드러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몸이동. 발달장애여성 배우가 던진  
단어이자 문장. 띄어 쓰지 않은 말의 틈을 몸으로  
상상해 봅니다. 흐릿한 지도 위, 배우들은 살아온  
경로를 몸으로 그려갔습니다.  
시설 사회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를 단절시킵니다. 관리와 통제로  
공백없는 관계는 치유를 강요합니다. 장애여성  
배우들은 틈을 내어 자신만의 속도로 동료들  
사이로 이동해갑니다. 가까이 마주하고 부딪쳐  
섞임으로써 시작된 관계를, 거리 두고 멀어지고  
머뭇거림으로 흐트러뜨려 서로를 지지하는  
돌봄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는 공연 연습으로  
서로의 삶이 변화하는 돌봄 관계를 익혀 왔습니다.  
틈. 사이. 거리의 상호성과 유연함이 만든 돌봄은  
어떻게 궁금해집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성장과 개발에서 ‘탈’하여  
느리게 꼬인 채로 살아가고 싶어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말들을 머금은 채, 먼저 몸을  
제주로 이동했습니다. 낭독극으로 기후정의와  
돌봄의 문제를 잇고, 요가를 이완-충동-의존의  
맥락으로 재해석하며, 즉흥극으로 나-우리의  
충동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표현하고, 제주  
생태에서 의존하며 사는 생명들의 생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몸, 다른 존재들이 존엄한 삶과  
죽음을 이어가는 데 몸을 더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터지는 말, 시끄럽게 고요한 몸,  
충돌하는 돌봄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땐 계속 공연을 연습합니다.  
내 몸에서 시작된 이동으로 시설 사회를 넘어  
서로 잘 돌보는 사회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 연극은 불구의 몸으로 느리게 함께 살기 위한  
돌봄 연습이기도 합니다. 춤추는허리는 계속  
‘꼬인 대로, 생긴 대로, 느리게 저항하며’ 무대  
안팎에서 이동(異動)권을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공연을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몸이동(異動).

## 제작

#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인권운동 단체로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극단 춤추는허리는 2003년 창단하여, 장애여성의  
삶과 현실을 연극으로 만들고 무대 안팎에서  
공연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탐구하며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연습실’에서 서로 같등하고 돌보는  
창작을 지향하며, 몸과 섹슈얼리티, 독립과 탈시설,  
성과 재생산권리, 노동과 관계 등을 장애여성의  
관점과 몸으로 드러내며 소수자의 삶과 만나고자  
합니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상성을 흔들며,  
설 곳이 없는 자들과 계속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2003), <나 여행 간다>(2006),  
<거북이 라디오>(2010), <거북이 라디오 2>(2011),  
<거북이 라디오 3>(2015), <불만폭주 라디오>

(2015,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마침, 좋은 삶>(2018), <빛나는>(2019, 2022),  
웹독백극 <춤추는 혼잣말>(2020), 연극연습 프로젝트  
연극연습4 관객연습 <사람이 하는 일>(2021) 등의  
공연을 창작해 왔으며 <2018 SeMA-하나 미디어아트  
어워드 명예상>, <2018 여성신문 올해의 성평등  
문화상>, <2019 문화·여성주의·기획-문화다움  
기획상131>, <2022 제58회 동아연극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 공동제작

# 반달

제작사 반달은 예술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미술, 개별작업과 공동작업, 전시장과 극장,  
그리고 생활현장을 오가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기획, 제작해왔습니다. 김민경과 임흥순이  
공동창립자입니다.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2014)을 비롯해 <비넵>(2012),  
<약사들>(2014), <위켄즈>(2016), <려행>(2016),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2019), <좋은 빛, 좋은 공기>  
(2020), <포옹>(2021)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영화는 현대의 또 다른 ‘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영화의 ‘꿈’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

# 서지원

저는 태어난 3개월부터  
사람들에게 몸이  
보였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 꼬여있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진에게 몸을 보이고 집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작업치료, 자세를 잡기 위한 침대와 의자  
맞춤 제작, 저의 몸은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입에 조이스틱을 물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혼자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린 채 호흡기인지 운전대인지 모를  
것을 입에 물고 침을 흘리면서 다니는 내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는 건 어찌하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서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사람들을 째려보고 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춤추는허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갈등은  
책임이란 점입니다. 소통 방식, 싸움의 방법,  
관계 맺음과 사회의 문제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몸이동을 통해 배웁니다. 춤추는허리는 갈등이  
정말 많은 현장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땐 호흡은  
더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걱정하고  
궁금해하기에 활동공간으로 몸을 이동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땐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정 고백이나고요? 글썄요~ 단지  
공연만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공간으로  
몸을 이동하여 서로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은  
동료관계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관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와 대상화의 차이는 진짜  
미묘합니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을 때 늘 아슬아슬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갈등의 책임’을 실천하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보조받는 몸이  
익숙해져서 때론 그 익숙함에 안주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버겁다고 느낄 때 뒤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숨어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아마 저의 이름은  
없어지고 착하고 순한 장애인으로 남겠죠?

제주에서 1인극을 준비할 때의 조용한 공간은  
저에게는 참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온전히 독립적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그때 제주도의 돌들을  
보면서 문득 경직된 저의 몸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은 돌을 만들기 위해  
깎기도 자르기도 합니다. 꼬인 몸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며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보기 좋게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묵직하고 딱딱하고 누가 봐도 이동하지 않는 돌과  
경직된 몸. 그러나 바람과 파도 혹은 다른 무엇과  
어울리기 위해 아주 조금씩 유연해지도록 깎이고  
깨지는 돌과 몸.

아직도 자연은 바라보며 나를 이입할 뿐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고  
그걸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과  
우리를 억압하는 세계에서 억압받는 생명들의  
문제를 조금 더 몸이동하며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몸의 충동대로 움직이면서 몸으로  
말하는 방식을 넓히고 싶습니다.

<거북이 라디오 1~3>(2010, 2015, 2017),  
<불만폭주 라디오>(2017,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마침, 좋은 삶>(2018),  
<빛나는>(2019, 2022)의 연출과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 고나영

유치원 학예회 날,  
흰 구두를 신은 친구들과  
달리 저는 초록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몸을 갖기  
위해 수술을, 비장애인처럼 움직이기 위해 재활을  
했습니다. 수술과 재활은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경계를 넘나들며 멀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비장애인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들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경계를  
마주했습니다.

경계 너머가 알고 싶어서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비정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들키지 않으려고 들여온 습관이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계획하는 습관은 내 몸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던 순간들과 닮아있습니다.  
혼자 하려는 습관은 비장애인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몸을 마주하는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장애여성이 되고 싶으면서도 되고 싶지  
않은 모순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순적인 몸으로 이리저리 동료들과 이동하며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중입니다. 휘청이고  
흔들리는 몸으로 파도와 모래 사이 경계에  
갔습니다. 평생을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게  
스스로 돌보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힘을 빼고  
흔들리는 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를 돌보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흔들림은 어지럽지만, 몸을  
흔들리게 해주어 춤이 되기도 합니다.

춤추는허리에서 즉흥극을 하는 것은 기대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를

때는 동료의 움직임이 보이면 됩니다. 동료의  
리듬에 맞추는 것, 더 빨리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이동을 춤추는허리의  
동료들과 함께해보고 싶습니다.

웹독백극 <춤추는 혼잣말>(2020) 조연출과  
<빛나는>(2022)의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 조화영

저는 프라더윌리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여성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몸이동으로 연극을 해오고 올해  
요가도 배우고 인권운동 해왔습니다. 공감에  
와서 처음으로 긴 대본 연기. 적응 안 되고  
어려웠는데 대본 백 번 쓰고 안 보고 종이에  
한 번 더 쓰고 외웠습니다. 그럼 공연할 때 쪽쪽  
나갑니다.

대사 칠 때 떨리지만 즉흥극은 떨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대사를 까먹고 그러면  
배우 동료들이 우왕좌왕 힘들어하는데 슬쩍  
즉흥을 넣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애드립으로.  
연극도 즉흥극도 한 명이 잘 안되면 다  
무너집니다. 힘이 빠지고 잘 안 되는데 에너지를  
같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 못 하면  
배우 동료들이 힘들어하고 진이 빠지고 연습도  
잘되지 않아 중단되기도 하고 갈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배우 동료가 화낸 적도 있습니다. 저도  
화낸 적 많습니다. 먹다가 들켜서 싸우기도  
합니다.

제주에 와서 즉흥극, 1인극하고 몸 이완 요가하고  
내 몸 알아가는 공부 배웠습니다. 모래를 걸을  
때는 발이 푹푹 빠져서 몸이 빠져들고 다리와  
발바닥 발가락 엄청 힘을 주면서 건다가 높은  
모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래흙에 잘

건기가 불편합니다. 균형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채식을 안 하는데 채식하는 지인님 만났습니다. 채식하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배가 빨리 꺼지긴 합니다. 저는 음식 좋아하고 공감에 있다가 집중 안 되면 간식 자주 먹습니다. 장애 때문에 조절을 못해서 눈앞에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채식이랑 장애 알겠지만 무슨 연결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채식 간식 어떻게 구하지 편의점에 있나 궁금합니다. 채식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야채나 좋은 음식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사라지고 건강 좋아지겠지요? 근데 다른 음식 먹고 싶고 음식을 참아야 하는데 먹고 나서 또 배고파집니다.

<거북이 라디오 3>(2015, 2016),  
<불만폭주 라디오>(2017,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마침, 좋은 삶>(2018),  
<빛나는>(2019, 2022)의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진성선** 저는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는 게 싫습니다. '어머니와 쌍둥이 동생, 가족 모두가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 있는'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대상 1순위. 주변엔 늘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

다. 5년 동안 춤추는허리를 하면서 장애가 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나. 다른 동료들 대

비판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부터 변하는 것, 실패하면서 쌓아온 시간은 활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주의 시간은 춤허리의 역사가 선언으로 남지 않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쁘다 또는 다른 핑곤했거리를 찾아 멈춰있는 동안 몸은 굳었고 동료들과 느낀 몸의 감각들은 점점 무뎠습니다. 충동과 몸의 감각을 찾기 위해 '이완'하는 요가와 만났습니다. 유연한 몸과 역동적인 동작, 떠오르는 이미지 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장애가 있는 몸과는 너무 다른데? 걱정도 저항도 들었습니다.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어렵다, 모르겠다. 뒤로 가지만 결국 우리가 해 온 것처럼 몸의 속도와 방식으로 요가를 만들어갔습니다.

제주로 이동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 지원을 주고받는 몸, 자연과 만났을 때 압도되는 몸, 갈등이 생기는 몸을 경험했습니다. 또 멈춰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애쓰고 있는 동료들 살피고 내일 더 해보자 결단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입안에 맴도는 말을 꺼내고 그 감정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즉흥극은 충동대로 욕구대로 움직이는 연습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동료들에게 기대어 왔듯이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보다 갑자기 툭 던지는 장애 개그에 당황하지 않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동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빛나는 (2019, 2022),  
연극연습4 프로젝트 <사람이 하는 일>에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김미진** 중년 장애 여성, 57세, 흰 머리카락, 보조기와 지팡이, 전수동 휠체어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를 즐김, 몸과 감각의 변화에 잘 흔들리기도 하는 장애 여성 활동가이자 배우입니다. 제 몸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왼쪽에 하지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몸의 각도만큼 걸음걸이와 시선이 남다릅니다.

장애, 비장애 여성들이 '몸이동' 프로젝트를 위해 제주를 오가며, 새로운 공간, 사람, 음식과 연결되며 새로운 공연 형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뿌리내린 낯선 식물들이 이동 경로와 생육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과 모양을 드러내며 서로 마주 보거나, 기대고, 휘감고, 뒤섞여 있는 모습 속에서 춤추는허리가 해온 퍼포먼스들이 떠올랐습니다. 14년간 해왔던 내 몸의 감각을 잊지 않고 활동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엔 그 감각을 붙들거나 붙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 함께 버틴 동료들, 함께 해야 할 동료들을 향해 먼저 환대의 소리와 움직임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운동이겠지요?

<거북이 라디오3>(2016),  
<불만폭주 라디오>(2017,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마침, 좋은 삶>(2018)에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김상미** 무대에 서는 거 좋아합니다. 배우들이랑 같이하고 솔직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공연 잘하는 모습 기대합니다. 기쁘고 걱정도 됩니다. 내가 공연 잘 못할까 봐 대사 까먹을까 봐요. 솔직히 제주도에서 반반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숨은 모습 보였습니다. 동료들 불편한 모습 분위기 안 좋습니다.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도망 안 가고 집중하는 거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 준비 중 하고 있습니다.

<불만폭주라디오>(2016, 2017,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마침, 좋은 삶>(2018),  
<빛나는>(2019, 2022)의 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임지인** 열 살부터 홈스쿨링을 하면서 생명을 가꾸고, 음식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북, 드럼과 기타를 연주하고, 벽화를 그렸습니다. <기억 샤휌 바다> 임흥순 개인전에서 <말의 바다>로 채식을 주제 삼아 전시와 공연을 펼쳤습니다. 채식을 통해 시각이 확대되어 점차 환경과 생태, 동물권, 인권, 장애, 여성 등의 분야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과 만남이 고맙고 설렘니다.

춤추는허리 이동 프로젝트  
과정공유회 <몸이동>

2023.12.27 (수) 17:00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평창동)